

SPORTS 시페퍼스 고예림 “팀 우승 목표로 달릴 것”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아웃사이드 히터 FA 영입...12시즌 간 활약한 베테랑 V리그 네 번째 유니폼...“공·수 고른 활약 펼치겠다”

“AI페퍼스는 단단한 팀입니다. 앞으로 팀 우승을 목표로 정진하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에 합류한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이 당찬 포부를 밝혔다.

프로데뷔 13년 차인 고예림은 12시즌 동안 V리그에서 활약한 베테랑이다. 안정된 경기 운영 능력은 물론 공수 밸런스를 고루 갖춘 선수로 평가받는다. 그는 2013~2014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한국도로공사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데뷔, 그해 신인왕을 차지했다.

팀 내 주전선수로 자리 잡은 고예림은 2017~2018시즌 개막을 앞두고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영입한 FA 박정아(현

AI페퍼스)의 보상 선수로 IBK기업은행으로 이적했다. 2019년에는 데뷔 후 첫 FA 자격을 얻어 현대건설로 등지를 옮겼다.

올해는 AI페퍼스가 2024~2025시즌 종료 후 열린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고예림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2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만난 고예림은 “지난 19일부터 팀에 합류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AI페퍼스에는 박정아, 한다혜, 하혜진 등 이는 선수들이 많다. 팀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예림이 FA 기간 AI페퍼스를 선택한 건 장소연 감독의 역할이 컸다.

그는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팀에 오고 싶었다. 장소연 감독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주셨다”며 “특히 도로공사 시절 신인 때 장소연 감독님과 같이 무대에서 뛰었다. 당시 배구에 대한 생각이 서로 잘

맞았고, 감독님의 열정 있는 모습이 좋아서 AI페퍼스를 선택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고예림은 2023~2024시즌 고질적인 무릎 부상을 털어내기 위해 수술을 감행했다. 회복 이후 경기에 전념한 그의 몸 상태는 더 좋아졌다.

그는 “솔직히 수술하고 나서는 쉽지 않았다. 재활기간도 길었고 그 전에 아팠던 기간도 길었기에 회복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그럼에도 재활을 잘 마쳤고, 복귀 후 시즌을 치르는 과정도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몸 상태가 수술전보다는 더 좋다”고 설명했다.

고예림이 바라본 AI페퍼스는 단단한 팀이다.

그는 “다른 팀에 있을 때 AI페퍼스를 바라보면 확실히 발전하는 게 눈에 보였다”며 “예전에는 어린 선수들이 많아서 기분이 심했지만, 당장 지난해만 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 팀이 더 기록 없이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의 강점으로는 수비를 꼽았다.

고예림은 “공격보다는 리시브 등 수비적인 부분에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상 전에는 공격에 더 자신감이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진 뒤에는 기록

이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몸이 좋아지다 보니 공격적이 부분에도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올 시즌 박정아·이한비·박은서 등 함께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예림은 “항상 포지션에 대한 경쟁은 있는 것 같다. 언니·동생 상관없이 잘하는 선수가 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부분은 오랜 기간 V리그를 뛰면서 익숙해졌다. 앞으로 제가 잘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V리그 네 번째 유니폼을 입게 된 그의 목표는 우승이다.

고예림은 “지금 AI페퍼스에는 (박) 정아 언니가 있다. 또 (한) 다혜나 (하) 혜진, (이) 한비는 이제 베테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기에 외국인 용병과 아시아권 선수까지 합류한다면 팀이 더 좋아지고 단단해질 거다. 프로팀 데뷔 후 우승을 한번 밖에 못해봤지만, 앞으로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 팬분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아와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바이애슬론 장명호·펜싱 문영준·세팍타크로 나상표 신임회장 취임

“인재 발굴·육성 집중...전남체육 발전에 온 힘”

“전남체육 진흥을 위한 중책을 맡은 만큼 경기단체 발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25년 전남도체육회 경기단체 회장에 선출된 장명호 바이애슬론 회장(47), 문영준 펜싱 회장(60), 나상표 세팍타크로 회장(63)의 당찬 다짐이다.

이들 3명은 전남도체육회 72개 종목별 경기단체장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새내기 회장 3인방’이다.

처음으로 단체장 직을 맡은 신임 회장이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열정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앞세워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열린 신임 회장 선임장 수여식에 참석한 이들은 전남체육회 공식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다짐했으며, 각 협회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현안 개선 로드맵까지 함께 제시했다.

먼저 고향 해남에서 남해건설계계 대표이사 사업가로, 해남읍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보이고 있는 장명호 바이애슬론 회장은 “동계 종목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국동계체육대회 등에서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고, 우수 선수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계 종목 특유의 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유소년 육성 시스템 개편 등을 구상 중이다.

무엇보다도 장 회장은 올해 2월 개최된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획득한 금 4·은 2·동



나상표 세팍타크로 회장



문영준 펜싱협회 회장



장명호 바이애슬론 회장

2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포함 80여점 득점, 전국 4위의 순위를 지켜낸다는 각오다.

문영준 펜싱 회장과 나상표 세팍타크로 회장 역시 협회의 내실화부터 튼튼히 다지겠다는 입장이다.

(취재)이티비 대표이사과 목포대학교 재광동문 회장, 전남도체육회 이사를 맡고 있는 문영준 회장은 학창 시절 배드민턴 엘리트선수로 활약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체육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회장 선출과 동시에 육성팀 학교장, 소재 시·군체육회장 등과의 미팅을 통해 전남펜싱의 예로ذج과 개선점을 파악함은 물론 각종 대회의 현장을 누비면서, 선수-지도자-임원간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104회 전국체전 6위, 제105 전국체전 8위 등 전국 중위권 전력인 중목 성적을 상승시키는 게 1차 목표다.

나상표 세팍타크로 회장 또한 무안에서 (취)영산업을 운영하면서 세팍타크로 발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팀 창단과 더불어 제104회 전국체전 5위 영예를 회복하겠다는 다짐이다. 제105회 전국체전 14위 부진 극복이 ‘발등의 불’이라는 각오다.

문영준·나상표 회장은 “선수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종목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것”이며 “현장과 소통하는 협회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들 신임 회장들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행보가 기존 체육회 운영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전남체육의 질적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 “광주 징계, FIFA와 계속 소통”

“FIFA 클리어링하우스 제도 ‘정착 과정’에 있어”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는 프로축구 광주FC의 연대기여금 미납 징계 사태와 관련해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착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축구연맹(FIFA)과 계속 소통하며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무이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FIFA 클리어링하우스 제도가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정착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대기여금은 선수 영입 시 발생하는 이적료의 일부를 해당 선수가 12~23세 사이 뛰었던 팀에 나눠주는 제도다.

예전엔 연대기여금을 구단이 상대 구단에 직접 지급했지만, 미지급 분쟁이 자주 발생하자 FIFA가 영입 구단으로부터 연대기여금을 받아 배분하는 방식으로 최근 바뀌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FIFA 클리어링하우스다.

김 전무이사는 “FIFA, 아시아축구연맹(AFC)과 소통하겠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논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는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 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업무를 본 구단 담당자가 인수인계 없이 휴직된 탓에 연대기여금 송금을 못했다.

또 같은 이유로 FIFA의 징계 사실도 인지하지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못한 광주는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명의 선수를 영입, K리그1 14경기와 코리아컵 2경기를 치렀다.

아울러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도 해당 선수들을 활용해 치렀다.

K리그1의 다른 구단들 사이에서는 광주가 치른 경기를 모두 0-3 몰수해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8일 광주와 홈 경기에서 진 포항 스틸러스는 프로연맹을 상대로 이의제기 절차를 시작했다.

선수 등록 업무의 주체인 축구협회는 ‘리그 운영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광주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김 전무는 “선수들에게는 ‘고의성’이 없었던 부분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에 기반해서 FIFA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나오는 결정에 근거해서 남은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외부 FA 잔혹사...전원 1군서 사라졌다

임상백·심우준·최원태·장현식·허경민 부상 또는 부진

프로야구 ‘게임 체인저’로 불렸던 자유계약선수(FA)들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엄청난 몸값과 보상금, 보상 선수를 내주면서 영입했던 외부 FA가 부진과 부상에 시달리며 팬들의 마음을 애대우고 있다.

지난 겨울 몸값 총액 40억원 이상의 대형 FA는 총 7명이다.

이중 최정(SSG 랜더스)과 김원중(롯데 자이언츠)을 제외한 5명이 팀을 옮겼다.

kt wiz에서 한화 유니폼으로 이적한 임상백과 심우준, 두산 베어스에서 kt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허경민, KIA 타이거즈에서 LG 트윈스로 적을 바꾼 장현식, LG에서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한 최원태가 주인공이다.

5명 중 기대에 걸맞은 행보를 걷는 선수는 한 명도 없다.

최근엔 5명 모두 1군에서 사라졌다.

계약기간 4년, 총액 78억원에 한화와 계약한 선발 투수 임상백은 올 시즌 8경기에 등판해 1승 4패, 평균자책점 6.68을 기록했다.

결국 임상백은 지난 17일 1군에서 짐을 쌌다. 한화가 4년 50억원에 영입한 유격수 심우준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33경기에서 타율 0.170, 1홈런, 9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459를 기록한 뒤 왼쪽 무릎 골절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계약기간 4년, 총액 70억원을 받고 사자 군단에 합류한 선발 투수 최원태도 아쉽다.

그는 올 시즌 9경기에 선발 등판해 3승 2패, 평균자책점 5.12로 부진했다.

최원태는 최근 엔트리에서 아예 제외됐다. 지난 17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상대 팀 타자 유강남의 타구에 오른팔을 다쳤기 때문이다.

다행히 골절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타박상 증세

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계약기간 4년, 52억원에 LG와 계약한 핵심 볼펜 장현식, kt와 4년 40억원에 계약한 주전 3루수 허경민도 상황은 비슷하다.

장현식은 개막 전 마무리 투수로 낙점됐으나 스프링캠프 기간 오른쪽 발등 인대가 파열되면서 뒤늦게 1군에 합류했고, 지난 13일엔 광배근 미세 손상 진단을 받아 전력에서 다시 제외됐다.

올해 26경기에서 타율 0.301을 기록한 허경민도 전력에서 사라졌다.

고질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허경민은 지난 달 28일 왼쪽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 염좌 진단을 받았고 한 달 가까이 재활에 전념했다.

최근 퓨처스(2군) 리그에서 복귀 준비를 하고 있지만, 1군 합류 시기는 미정이다.

외부에서 영입한 FA 선수들이 부진한 성적을 내는 건 KBO리그에서 비일비재하다.

FA 계약을 앞두고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뛰여파가 이적 직후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38세의 한국 탁구 ‘만언니’ 서효원(한국마사회)이 자신의 마지막 세계선수권대회 무대인 도하 대회에서 여자단식 32강을 끝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서효원은 21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스포츠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단식 32강에서 크로아티아의 레아 라코바츠에게 2-4(11-3 9-11 11-7 4-11 7-11 6-11)로 역전패했다.

단식에만 출전한 서효원은 32강 탈락으로 세계선수권을 마쳤다.

서효원은 이번 세계선수권을 끝으로 국가대표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화려한 ‘라스트 댄스’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자신의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인 8강 이상 진출을 노렸고, 1차 목표포 32강 진출을 쫓았다. 그러나 서효원은 32강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뒤, 16강 김복에서 멈춰서야 했다.

그는 스포츠 선수로는 환갑의 나이인 38세인데다 잦은 부상으로 선수 생활 중단을 고민해왔고, 이번 세계선수권을 태극마크를 반납하는 고별 무대로 삼았다.

단식에만 출전한 마지막 무대를 자신의 역대 최고 성적으로 장식하고픈 마음이 간절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32강에 오르기도 ‘복병’ 라코바츠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마지막 세계선수권을 아쉽게 마감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직도 다음 경기를 위해 보완할 점이 먼저 떠오를 만큼 실감이 안 난다”면서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탁구를 오래 치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이뤄졌다”며 자신을 위로했다. 연합뉴스